

광주FC, 포항스틸러스 상대 설욕전 나선다

18일 포항스틸야드서 원정 경기

지난 3월 홈경기서 2-3 역전패 주중 코리아컵서 상반된 분위기 전력·분위기 우위 속 승리 자신 "리그 성적이 가장 중요한 과제"



광주FC가 포항 스틸러스 상대로 설욕전에 나선다. 광주 선수단은 지난 3월 4라운드 맞대결에서 역전패의 아쉬움을 되갚

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과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를 갖는다.

광주는 포항과 지난 3월 22일 4라운드 맞대결에서 2-3으로 아쉽게 패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광주는 홈 경기에서 주도권을 쥐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각종 불운과 악재가 겹친 끝에 후반 추가시간 골을 허용하며 2-3 역전패를 당했다. 이정호 감독과 선수단 모두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로 회상할 만큼 뼈아픈 패배였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설욕전'이자 상위권 재도약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현재 광주와 포항은 나란히 13경기예



광주FC가 오는 18일 오후 4시30분 포항스틸야드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포항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광주 FC 선수들이 지난 1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서 5승 4무 4패, 승점 19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 팀은 20점 고지를 넘으며 상위권 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패배 팀은 바짝 뒤따라

오는 중하위권 그룹에 추격을 허용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두 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광주는 주중 열린 코리아컵 16강전에서 수원FC를 꺾고 8강에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반면, 포항은 코리아컵 16강전에서 김포FC에 일격을 당하며 탈락, 분위기

가 처져 있다.

이에 광주 선수단은 변곡점이 될 이번 경기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이정호 감독의 '전략적 로테이션'도 효과를 발휘 중이다. 이 감독은 코리아컵에서 직전 리그 경기인 전북현대전을 소화한 11명의 선수를 전원 선발 제외하며 철저한 체력 안배를 택했고, 이는 5월에만 7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일정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다.

반면 포항은 리그 주축 선수들을 다수 코리아컵 경기에 출전시키며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분위기와 체력 두 측면에서 광주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는 포항 원정에서 완성도 높은 수비 조직력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후반기 전환점을 앞두고 분위기 반전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한 일선인 만큼, 이정호 감독의 전술 선택과 교체 카드 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정호 감독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일은 모두 중요하지만, 리그 성적이 가장 큰 목표"라며 "리그에서 선발로 뛸 선수들을 코리아컵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고 포항전에 초점을 맞춰 컨디션 조절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한국 축구대표팀, 9월 미국·멕시코 원정 평가전 확정

홍명보호, 북중미 강호 상대 월드컵 본선 적응 본격 시동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 중인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이 오는 9월 미국에서 북중미 강호들과 연이어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개최지를 미리 밟으며 본선 경쟁력을 가다듬는 시험무대다.

15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9월 A패치 기간에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원정 평가전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대표팀은 먼저 9월 7일 오전 6시(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의 레드볼 아레나에서

미국과 첫 경기를 갖는다. 이어 9일에는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르며, 경기 장소와 킥오프 시간은 추후 확정된다.

한국의 해외 원정 평가전은 2023년 9월 영국에서 치른 웨일스전과 사우디아라비아전 이후 2년 만이다.

미국과의 맞대결은 2014년 2월 LA 평가전 이후 11년 만이다. FIFA 랭킹 23위 한국은 16위인 미국보다 낮지만, 역대 전적에서 5승 3무 3패로 앞서고 있다.

FIFA 랭킹 17위인 멕시코와는 2020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가진 평가전 이후 5년 만의 재회다. 상대 전적은 4승 2무 8패로 열세에 놓여 있으며, 1998년과

2018년 월드컵 본선에서 모두 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평가전이 설욕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 본선 개최지 적응, 북중미 스타일 대응력 점검, 1.5군급 자원 테스트 등 실전 전략 수립에 집중할 전망이다.

홍명보 감독은 오는 26일 축구회관에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마지막 두 경기를 치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6월 5일 이라크 원정, 10일 쿠웨이트와의 홈경기를 통해 아시아 3차 예선을 마무리 짓는다.

최동한 기자



지난 3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만과의 월드컵 3차 예선 당시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모습. 대한축구협회 제공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